

청년들의 위험자산 투자 원인에
관한 연구: 도박적 투자로 이끄는
개인적 · 환경적 조건

맹성준, 양은정, 강준혁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을지대학교

청년들의 위험자산 투자 원인에 관한 연구 - 도박적 투자로 이끄는 개인적 · 환경적 조건-*

맹성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양은정***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강준혁****

울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주제분류 사회복지학, 질적 연구

주제어 청년, 위험자산, 도박적 투자, 귀납적 내용분석

요약문 최근 청년들의 위험자산 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들의 위험자산 투자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년들의 위험자산 투자 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87개의 언론기사에서 151명의 사례를 추출했다. 수집된 자료는 Elo와 Kingäs(2008)가 제안한 귀납적 내용분석(inductive 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포모증후군’, ‘과잉확신’, ‘열망’, ‘준거집단’, ‘경제적 어려움’, ‘유동성 확대’, ‘높은 접근성’을 포함한 총 7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도출된 범주 간 관계를 고려하여 전체 범주를 통합하는 주요범주를 ‘불안과 박탈감, 확신감, 열망감을 자극하여 도박적 투자로 이끄는 사회 · 경제 · 기술적 조건’으로 상정했다. 연구자들은 상술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위험성 투자를 예방할 수 있는 금융교육의 확대,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역할 확대,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모델 구축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과제번호 NRF-2020S1A5B810099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e-mail: junhyeok@eulji.ac.kr)

I. 서론

최근 청년들의 위험자산 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9년 11월 코로나19(COVID-19) 감염이 최초로 보고된 이후, 이 질병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코로나19는 교육, 문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구자현 외, 2021). 각국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대응책으로 저금리 기조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사람들은 정부의 통화팽창정책을 기회로 삼아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시작했다. 장혜영 의원실(2021)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증권사의 신규 계좌개설 수가 2018년 3,825,815건, 2019년 4,523,548건으로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신규 계좌개설 수는 18,184,342건으로 전년 대비 약 301% 급증하였으며, 전 연령대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 광풍에 휩싸였다. 특히 청년으로 칭할 수 있는 2030세대의 경우 2020년 신규 계좌개설 수가 전체의 약 54%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신용거래용자 역시 2019년 대비 2020년 신규대출액은 약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1월 수행된 관련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년 2,083명 중 50%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 2022). 즉, 응답자 2명 중 1명이 일명 ‘빚투(빚내서 투자)’ 내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투자를 한 것이다. 통계청(2022)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9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부채 금액은 5,0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2%나 증가하였는데, 40대 1.0%, 50대 6.8%, 60세 이상 6.0%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문제는 각국 정부들이 저금리 기조를 포기하고 금리 인상을 시행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어 발생하기 시작했다.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75bp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을 단행하면서 세계 각국 정부들 역시 금리를 인상하였다. 2020년 5월 기준 0.5%에 불과하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21년 8월 0.75%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현재(2023년 3월 기준) 3.50%까지 치솟았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3b). 실제로 개인들이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예금은행 대출금리(가계대출)는 2023년 1월 기준 5.47%로 기준금리보다 더 높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3a). 급격히 높아진 금리로 인해 사람들은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상환하는 것 역시 더 어려워졌다. 이를 반영하듯 대출 상환율이 저금리 시기였던 2020년 2/4분기 18.1%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 시기인 2022년 2/4분기 16.5%로 하락하였다(한국은행, 2022).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은 급격한 기준금리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청년들이 위험자산(risky asset)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일 것이

다. 그러나 이것은 일차적인 문제이며, 경제적 문제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실증적인 연구들은(김정은·김지하, 2015; 주휘정·김민석, 2018; 백아름 외, 2022; 이용호·이원익, 2022) 부채가 청년들에게 학업성취, 노동시장 진입, 부모로부터의 독립, 결혼 등 성인기의 발달 과업을 달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진 최적의 시기에 발달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후의 발달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권중돈, 2014). 게다가 위험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문제는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강도, 사기, 횡령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세계일보〉, 2022).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학계에서도 청년들의 위험자산 투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위험자산 투자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수행되었으며,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드물게 수행되었다. 경제학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청년들의 투자 인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Hoxha and Zeqiraj, 2019; Yusof et al., 2023; To and Siem, 2023). 한편,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청년들의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 위험자산 투자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이영선 외, 2018; 김종두, 2021; Munawar and Mahaputra, 2022). 둘째, 청년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된 원인과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강상준 외, 2021; 이동준 외, 2021; 김명수, 2022; 윤덕규, 2022; 이동준, 2022; Gagarina et al., 2019).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청년들의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청년들의 위험자산 투자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 분야를 분절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청년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현상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구조적 원인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위험자산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위험한 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위험자산 투자 사례들을 검토하여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문헌검토

1. 청년과 투자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들의 위험자산 투자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연구의 대상인 청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청년에 대한 정의는 학자나 법률마다

다소 상이한 편이다. 우선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청년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국립국어원, 2023). 상술한 사전적 정의를 통해 조사 대상이 청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보통 정책의 대상이나 연구의 대상을 규정할 때는 연령을 기준으로 청년을 구분한다.

청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청년기본법」의 제3조(정의)에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법제처, 2023a). 하지만 동법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의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소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제3조(용어의 정의)에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법제처, 2023b), 서울시에서는 39세 이하의 사람까지 청년 범주에 포함시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청년을 연구의 대상으로 볼 때는 만 15세에서 39세까지를 폭넓게 청년으로 규정하기도 한다(김기현·배정희, 2021). 다만 선행연구에서 연령을 폭넓게 규정한 이유는 조사 시계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적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며, 실제 이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은 만 18세~34세였다(김기현·배정희, 2021). 인간의 발달단계 측면에서 청소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성인기를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은 고등학교 졸업과 취업, 결혼 등을 통해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성취하는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권중돈, 2014; 민성길 외, 2015; 김영화, 2016). 최근 청년의 높은 실업률과 이로 인한 경제적 취약성, 정신건강 등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가 매우 복잡해졌으며, 2021년 기준 대한민국 평균초혼연령은 남성 33.35세, 여성 31.08세인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통계청, 2023a). 비교적 최신의 선행연구들(이선희 외, 2019; 박정민 외, 2022)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연구의 분석대상인 청년을 만 20세~39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사회적 통념상 청년을 2030 세대로 본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사회의 청년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선행연구들의 정의와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청년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령이 젊을수록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재형·구기동, 2004; 여운경·정순희, 2004; 김민기·김준석, 2021; Kumar, 2009). 최근 청년들의 과감한 투자의 예로 가상자산을 들 수 있는 데, 금융위원회(2022)에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개인 이용자 총 690만 명 중 20대 이하 165만 명(24%), 30대 211만 명(31%)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청년이 전체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증권계좌 개설 수를 살펴보면, 2020년 전체 신규 계좌개설 수 18,184,342개 중 20대 4,835,053개(26%), 30대 5,084,758개(27%)로 청년들의 비중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장혜영 의원실, 2021).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이 사회초년생이라고 해서 투자에 관심이 적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2.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

일반적으로 투자는 경제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경우 흥미를 느낄 수 있지만, 아마도 재미를 위해 투자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는 수익 창출을 통해 더 나은 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투자한다. 청년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위험자산 투자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주지하다시피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한 기간이 짧은 사회초년생임을 고려하면,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통계청(2022)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39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평균 자산 보유액은 36,33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40대 59,241만 원, 50대 64,236만 원, 60세 이상 54,372만 원과 비교했을 때 적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부채의 경우는 39세 이하 평균 부채 보유액은 10,193만 원이나, 40대 12,328만 원, 50대 10,763만 원, 60세 이상 6,045만 원으로 나타나 자산 보유액과 달리 부채 보유액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22). 청년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상황이 풍족하지 못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순자산의 증감률이다. 2021년 대비 2022년 자산과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39세 이하 2.0%, 40대 8.7%, 50대 14.6%, 60세 이상 11.8%로 확인되어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22). 이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 대비 과한 부채와 순자산의 증감률은 청년들이 경제적 문제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아직 경제적으로 낙관적이지 않은 만큼 청년들은 경제적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인이 되기 위해 청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질적 수준이 담보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얻어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에서 실시한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 상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2,041명 중 35.4%가 ‘첫 일자리를 갖는 것’이라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후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25.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김기현·배정희, 2021). 학교 졸업(11.1%), 결혼(7.4%) 등의 응답결과도 있었지만, 상술한 것과 같이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이 청년들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조사에서 결혼을 망설임 이유를 물어본 결과, ‘결혼 비용 때문에’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기현·배정희, 2021). 이는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문제가 결혼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청년 1인가구와 청년부부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두드러지는 경제적 문제로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약 31%가 매월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어 주거비 과부담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임덕영 외, 2017). 청년부부가구는 다른 청년 가구 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부채가 많았는데 대부분이 주택 관련 부채인 것으로 드러났다(정세정 외, 2020). 이에 더해 청년부부가구는 자녀 출산 시 양육 비용에 대

한 경제적 부담 또한 증가하였다(최효미 외, 2018).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경제적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경제적 문제는 인간의 삶과 필수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인간이 경제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박선웅·박예린, 2019). 청년들 역시 경제적인 욕망을 가지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산시장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양상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므로(권중돈, 2014), 청년 개인의 욕구뿐만 아니라 청년이 처한 환경, 즉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동시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위험자산 투자 원인

재무학에서 금융상품은 투자수익률의 불확실성과 원금손실 가능성에 따라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risk-free asset)으로 구분된다(Himanshu et al., 2021). 위험자산은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률이 불확실하거나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며 주식, 부동산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무위험자산은 투자수익률이 안정적이고 예상가능하며, 원금지급이 확실시되는 금융상품으로 국채(government bonds)나 예금 등이 그 예이다.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효용함수를 고려하여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나, 최근 청년들의 금융상품 투자 행태를 살펴보면 위험자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청년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험자산에 왜 투자하는지를 밝힌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연구나 이론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근래 청년들의 투자 목적을 확인한 조사가 있었다. 언론사 및 관련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청년 금융인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0명(복수 응답) 중 44.5%가 ‘근로소득으로 자산 증식이 힘들어서’, 35.8%가 ‘예·적금 금리가 낮아서’, 31.4%가 ‘결혼자금, 생활비 등 마련’, 26.3%가 ‘내 집 마련 위해’ 투자를 한다고 응답했다(〈동아일보〉, 2021).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결국 청년들은 결혼자금, 생활비,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은행의 예·적금 금리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들이 왜 위험을 안고 위험자산에 투자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투자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관련 이론이나 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설명할 수 있다. 개인의 투자 동기, 특히 위험성 투자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을 살펴보면 행동주의 재무이론(behavioral finance)의 ‘과잉확신(overconfidence)’ 관점과 ‘도박사의 오류(Gambler’s fallacy)’ 관점이 있다. 행동주의 재무이론에 따르면 자신이 가진 정보나 능력에 대한 투자자의 과잉확신이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본다(이화연 외, 2007; 옥기율·김태우, 2010).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처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인 평가보다 더 높게 작용하는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을 과잉확신이라 한다(임미자, 2011). 개인들은 자신의 성공확률을 객관적인 확률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Langer, 1975), 이처럼 투자자는 자신의 정보나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더 위험을 추구하게 된다(Odean, 1998; Gervais et al., 2009). 주소현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세대별로 금융상품 보유 행동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밀레니얼세대는 X세대와 86세대와는 다르게 높은 자기과신 성향을 보였고, 자신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높게 판단했으며, 재무위험의 수용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과잉확신이 청년들의 위험한 투자를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도박사의 오류 역시 위험한 투자를 가능하게 만든다. 도박사의 오류란 이전 사건의 결과가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착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여러 번 동전을 던졌을 때 매번 앞면이 나왔다는 이유로 다음번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도박사의 오류에 해당한다(김명순, 2008: 36). 여기에서의 확률은 통계적 확률이 아닌 주관적 확률이다. 동전 던지기에서 뒷면이 나올 통계적 확률은 언제나 1/2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오류는 앞에서 일어난 사건과 뒤에서 일어난 사건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확률 이론의 가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도박사의 오류는 일상에서도 흔히 관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오류를 종종 범한다. 가령 어떤 주식이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였으니 이제는 반등하여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반대로 어떤 주식이 지금까지 계속 상승하였으니 조만간 하락할 때가 되었다는 불안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인버스(inverse) 주식을 매수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또한 투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태체계 관점에서 살펴보다라도 인간의 행동은 가족, 친구, 지인 등 주변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엄명용 외, 2016).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2022)에서 실시한 2021 펀드 투자자 조사에서 펀드 정보 취득 방법을 조사한 결과, 2,500명의 응답자들은 금융회사(44.3%), 인터넷(18.1%), 지인(15.5%), 신문·잡지·TV(10.6%) 등 다양한 사회적 경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안영규, 2021; 이동준 외 2021; 윤덕규, 2022)은 투자의 이유로 지인 및 친구의 권유, 대중매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청년 투자자들 역시 사회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으로써 투자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미디어 및 인터넷 등 각종 정보매체나 지인, 친구 등의 준거집단이 투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이계웅·하규수, 2014).

사회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소득, 자산, 부채 등 재무환경 역시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득이 높은 경우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경옥 외, 2010). 또한 선행연구들(최지은 외, 2005; 김병우, 2019)은 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계의 자산 보유량이 많을수록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자산 중에서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험자산에 투자하며, 반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tty et al., 2017). 부채 역시도 소득이나 자산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없는 가계보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가 주식투자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최원호, 2018), 더 나아가 가계가 보유한 부채가 높을 경우 주식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운경·정순희, 2004).

마지막으로 변화된 물리적 투자 환경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빈테크’라는 용어가 미디어에서 종종 언급된다. 이는 가난할 빈(貧)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여윌돈이 없는 사람들이 핀테크(FinTech)를 활용해 돈을 모으는 활동을 말한다(김광현·김태은, 2020: 228). 원래 빈테크는 모바일을 활용해 중고거래를 하거나 여러 IT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를 적립해 돈을 모으는 활동이지만, 최근에는 몇몇 투자 관련 기업들이 빈테크의 일환으로 소액으로도 주식 또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어 청년들의 투자 접근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기초분석

연구자들은 본 연구에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고자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목적 표집 방법은 연구문제와 관련성이 높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연구자가 계획적인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연구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질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다(Yin, 2015). 연구자들이 의도적 표집 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본 연구 목적인 ‘청년들의 위험자산 투자 원인 탐색’에 적합한 사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였다. 보도 기간은 코로나19의 최초 감염 보고일이 2019년 11월 17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시기가 2020년 1월 20일임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고, 언론사는 사례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전국 일간지 11개를 선정하였다. 언론 기사에 ‘청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검색 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투자’, ‘빚투’,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코인’, ‘암호화폐’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기사가 검색되도록 했다. 또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고자 검색 키워드 처리는 바이그램으로 설정하였다. 상술한 방법을 통해 검색된 언론 기사는 총 24,757건이었다.

이후 연구자들은 본 연구에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고자, 몇 가지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청년을 주제로 한 언론 기사만을 선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이 청년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난 언론 기사만을 선정하였다. 셋째, 언론 기사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기자의 글이 중심이 된 기사들은 배제하고, 당사자 관점을 최대한 연구에 반영하고자 기사 내용 중 청년의 직접적인 구술내용이 담긴 기사만을 선정했다. 넷째, 언론 기사의 제목이 다르더라도, 내용이 중복되는 언론 기사는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언론 기사 24,757건 중, 상술

한 기준에 부합한 87개의 언론 기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언론 기사에 제시된 총 275명의 사례 중 151명의 사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례의 기초 정보는 다음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분석자료의 기초 정보

연번	기사 제목	기자명	발행처	발행일자	비고
1	“알바비 털어 주식에 올인…?” 한국 2030은 왜 폭락장에 뛰어드나	조민아 · 양민철	국민일보	2020 0318	2명 (조, 이)
2	“이때다” 주식 뛰어드는 2030… 선부른 투자맨 낭패	김동혁	동아일보	2020 0320	1명 (A)
3	‘동학개미운동’ 외치는 2030 vs 주가 바닥 모른다는 4050	김아사	조선일보	2020 0321	1명 (임)
4	증시가 출렁일 때, 우리도 몸부림쳤다	전현진	경향신문	2020 0417	2명 (김, 이)
5	[서소문 포럼] 코로나 직격탄 맞은 청년을 위해	김창규	중앙일보	2020 0429	1명 (A)
6	[한국인의 탐닉] “통장서 1000만원 썩는 기분” 동학개미, 주식에 몽칫돈 올인	조아름	한국일보	2020 0709	2명 (김, 조)
7	[르포] “이제 살길은 부동산 뿐” 집보러 나선 사람들	김지애	국민일보	2020 0714	2명 (손, 김)
8	“지금이라도 막차 타야하나” …주식·부동산 열공하는 2030세대	구특교	동아일보	2020 0717	3명 (최, 이, 박)
9	청년들 빚투 광풍… 주식 신규계좌 · 金투자 절반 이상이 2030	최형석 · 김민정 · 최은경	조선일보	2020 0727	1명 (장)
10	“자고 나니 1억 경충” 패닉바잉 3040, 곳곳서 희비 교차	최지웅	국민일보	2020 0727	2명 (서, A)
11	“집값 오른다” 쏠림 기대심리…정부 대책 비웃는 2030 패닉바잉	박성우 · 권유정	조선일보	2020 0729	1명 (백)
12	“요즘 이 주식 좋지 말입니다” 군 내무반 병정개미들 출현	이기훈 · 김민기	조선일보	2020 0812	1명 (연)
13	취업난에, 내 집 마련 어려워지자…20대 대박 좇아 ‘빚투’로 몰려	김자현	동아일보	2020 0812	1명 (이)
14	‘영끌 막차’는 웃고 ‘기다리자’는 울고… 엇갈린 희비	최지웅	국민일보	2020 0826	2명 (권, 서)
15	“망설이는 동안 2천 뛰더라” 30대가 ‘영끌매수’ 나선 이유	박장군	국민일보	2020 0908	3명 (박, 김, 이)
16	빛내서 테슬라 주식 샀는데, 서학개미들 9700억원 날렸다	김지섭 · 정시행	조선일보	2020 0909	1명 (오)

연번	기사 제목	기자명	발행처	발행일자	비고
17	치솟은 집값 탓... 신혼집 갈등에 결혼이 깨졌다 [S스토리]	박세준	세계일보	2020 0913	3명 (박, A)
18	[창간기획-2030 자낭세 보고서]①밀레니얼 개미들이 묻는다 “블로소득, 꼭 나쁜 건가요”	심윤지 · 오경민, 윤기은 · 이창준 · 조해람	경향신문	2020 1006	9명 (정, 조, 강, 이, 이, 권, 정, 박, 석)
19	“부동산은 돈 없고 비트코인은 무섭고... 그래서 주식 몰빵”	정우진	국민일보	2020 1006	2명 (정, 장)
20	[단독]숫자로 확인된 20대 ‘빚투’ ...융자 133% 늘어 3800억	오현석	중앙일보	2020 1007	3명 (박, 배, 윤)
21	1억 넣어도 연 이자 70만원... ‘저축→집→노후’ 고리 사라졌다	장원석	중앙일보	2020 1020	1명 (김)
22	“돈 모아 집 사란 말은 공허” 2030 대화 시작과 끝이 아파트	장원석	중앙일보	2020 1021	4명 (박, 이, 최, 정)
23	[창간기획-2030 자낭세 보고서] 가장 흔한 ‘돼지저금통형’, 금수저 비율 높은 ‘존리주의자형’ ...투자자 유형별 특징은?	김유진 · 심윤지	경향신문	2020 1021	1명 (박)
24	‘잃어버린 세대’ 29만명	남건우	동아일보	2020 1112	1명 (이)
25	코인 바람 또다시...2030은 왜 흔들리나	반기웅	경향신문	2020 1128	1명 (노)
26	월급 모아 내집마련?... 주식-가상화폐 ‘영끌’ 투자 나선 2030	김자현, 장운정	동아일보	2020 1201	4명 (허, 오, 설, 한)
27	월급은 티끌, 주식·부동산 대박... “이러니 탐할 수밖에” [이슈&탐사]	권기석 · 김유나, 권중혁 · 방극렬	국민일보	2021 0101	3명 (이, 박, 김)
28	[박일근의 이코노픽] 700만 동학개미가 쏘아 올린 증시, 주가도 집값처럼?	박일근	한국일보	2021 0104	1명 (C)
29	[주변부 세대] 취업문 뚫으니 내집 마련 ‘미션 임파서블’ ...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해”	오지혜	한국일보	2021 0104	3명 (김, 박, 서)
30	[주변부 세대] 어른들이 말하는 미래를 믿느니... 주식이 보여주는 숫자를 믿겠어요	최은서	한국일보	2021 0105	3명 (전, 서, 김)
31	‘영끌 빚투’ 꿈꾸는 당신께, 주식 9승1패 개미 이야기[이슈&탐사]	권기석 · 김유나, 권중혁 · 방극렬	국민일보	2021 0107	2명 (오, 차)
32	일 못구해 그냥 쉬는 청년 42만명... “평생 알바 할까 두려워요”	구특교	동아일보	2021 0114	1명 (박)
33	임금 0.7% 오를때 주가 30%↑...박탈감 커진 ‘일개미’	김보름	문화일보	2021 0115	1명 (박)
34	‘앵그리 머니’ 증시로 증시로	염지현 · 윤상언	중앙일보	2021 0118	1명 (김)

연번	기사 제목	기자명	발행 처	발행 일자	비고
35	“승진 됐고, 주식으로” 40대 은퇴 ‘파이어족’ 꿈꾸는 2030	염지현 · 윤상언	중앙 일보	2021 0131	5명 (김, 손, 양, 최, 편)
36	“아침 9시 되면 화장실 달려간다” 日언론도 주목한 동학개미	김명진	조선 일보	2021 0209	1명 (A)
37	하루 3시간 자며 5000만원을 7억으로... 불안감이 키운 ‘빚투’ 한방	이태권	서울 신문	2021 0225	1명 (황)
38	펀드매니저 못 믿겠다... ‘직투’ 로 한방 노리는 30대	홍준기	조선 일보	2021 0301	1명 (홍)
39	벼락거지 불안증...부동산 · 주식으로 관심 대거 이동	김남준	중앙 일보	2021 0311	1명 (김)
40	“이자 뺏고도 남는 투자” ...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빚투’ 자금 전략	박지원	세계 일보	2021 0330	2명 (고, 김)
41	“내집 마련 생각하면 답 없지만... 정부 정책 별로 기대 안해”	이소연	동아 일보	2021 0401	2명 (박)
42	‘파이어족’ 진짜 있네... “투자로 35억 벌어 29살에 퇴사했어요”	김신영	조선 일보	2021 0410	1명 (한)
43	“우리에게 기회는 코인뿐” ... 부동산에 빨난 2030 ‘불나방 투자’	김보름 · 민정혜 · 송정은	문화 일보	2021 0415	1명 (박)
44	자영업 무너지자 알바마저 잘리는 청년들... 경제고통지수 최악	남건우	동아 일보	2021 0416	1명 (이)
45	급등한 집값에 ‘화들짝’ ... 주식 · 가상화폐 등에 과감하게 ‘베팅’ [‘변화의 중심’ MZ세대]	김범수	세계 일보	2021 0419	3명 (김, 박, 윤)
46	[단독]2030 ‘코린이’ 석달새 158만명 급증... 재택 수업중에도 코인창만 들여다봐	김자현	동아 일보	2021 0421	1명 (이)
47	[단독]탈출구 찾는 청년들 ‘영끌 베팅’ ... 가상화폐 1분기 신규투자 63%가 2030	김자현	동아 일보	2021 0421	1명 (정)
48	[기자가만난세상] 비트코인 광풍, 씹쓸한 뒷면	남혜정	세계 일보	2021 0423	2명 (A, B)
49	“ ‘돈복사’ 못하면 나만 바보” ... 2030 코린이 159만명 폭증	유대근 · 윤연정	서울 신문	2021 0426	2명 (김, 진)
50	[단독]주담대 70%가 변동금리, 금리 뛺 땨 ‘영끌족’ 휘청	염지현	중앙 일보	2021 0426	2명 (김1, 김2)
51	“마지막 남은 계층 사다리” ...가상화폐 매달리는 2030	박지원	세계 일보	2021 0503	2명 (김, 이)
52	내 주식 · 코인 투자는 공격형? 안정형?...내 유형부터 먼저 알아야	이재호	한겨 레	2021 0507	1명 (전)

연번	기사 제목	기자명	발행 처	발행 일자	비고
53	수원·관악 청년들의 좌우명 “티끌모아 투자해야 태산된다”	김현예	중앙 일보	2021 0513	1명 (윤)
54	머스크 한마디에 출렁이는 암호화폐 시장… ‘일론알리미’ 등장	김지혜	중앙 일보	2021 0519	1명 (박)
55	“현생 불가” “잡코인 샀다 차였다” 대학생 4명중 1명 코인 중	권혜림·정진호	중앙 일보	2021 0524	3명 (최, 박, 이)
56	“전 재산 반토막” 코인 하락장에 투자자들 ‘패닉’	김자현	동아 일보	2021 0524	1명 (신)
57	[인사이드&인사이트]내년 1월로 연기된 가상화폐 과세, 국회는 또 “1년 유예” 논란	남건우	동아 일보	2021 0525	1명 (문)
58	20대 ‘코인 광풍’ 이유 있었네…순자산, 20대만 쪼그라들었다	임성빈	중앙 일보	2021 0525	1명 (A)
59	‘인생역전’ 코인에 매달린 2030… 10명 중 8명 “시즌3에 웃을 것”	이주원	서울 신문	2021 0526	4명 (박, 이, 강, 김)
60	[취중생] “우리가 진짜 투기꾼이냐” … ‘코인판’ 주도하는 2030의 번	이주원	서울 신문	2021 0529	2명 (박, 오)
61	월급 어떻게 쓰니?... 2030세대 직장인에게 들어보니 [김범수의 좌충우돌 경제만상]	김범수	세계 일보	2021 0605	1명 (정)
62	“내 코인 괜찮나” 틈만 나면 휴대폰… 밤샘 투자로 ‘좀비’ 된 직장인	김지섭	조선 일보	2021 0611	1명 (이)
63	[기획 시리즈 ‘경제 청년’] 알바·잡채취업·초단기근로...일하고 있는데 일이 고프다	윤지원	경향 신문	2021 0713	1명 (유)
64	‘부실 급식’ 생중계에 장병들 주식 열풍·온라인 쇼팽까지 [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	김성탁	중앙 일보	2021 0714	1명 (정)
65	‘영끌’ 폭발에 약발 안 먹히는 가계빚...금리 인상만이 해결책?	염지현	중앙 일보	2021 0808	1명 (주)
66	[단독]부모 돈 빌려 집 산 청년 비중, 文정부서 2배 늘었다	김남준	중앙 일보	2021 0902	1명 (강)
67	개미들 ‘물빵 투자’ 옛말... 연금·월급 다층 설계로 미래 대비 [연중기획-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정훈	세계 일보	2021 0909	1명 (조)
68	[단독]20대 ‘주식 빚투’, 2년새 4배로 폭증...60대도 경충	이상환	동아 일보	2021 0913	1명 (박)
69	‘영끌’로 엄청난 아파트 산 20대 “월급 다 대출 갚아도 만족”	염지현·윤상언	중앙 일보	2021 0929	2명 (이, 김)
70	10년 부은 청약통장도 켜다...내집 마련 포기하고 코인 사는 청년들	강승현	동아 일보	2021 1001	1명 (이)
71	“오징어 게임 보다 켜다. 지옥 같은 내 삶 같아서” ...빚과 싸우는 채무자들	신지인	조선 일보	2021 1002	1명 (이)
72	487조 빚 짊어진 2030... 위기 땀 ‘폭탄’ 먼저 터진다	송수연	서울 신문	2021 1004	1명 (박)

연번	기사 제목	기자명	발행 처	발행 일자	비고
73	“학자금 대출받아 코인 투자” “집 엄두 못내 저축 대신 쇼핑”	박희창	동아 일보	2021 1130	2명 (이, 김)
74	29세 세친구 “1억 빚투로 코인대박… 청년 창업 지원 나설것”	김자현	동아 일보	2021 1201	1명 (한)
75	청년 45% “일해서 번 돈으로 자산 못블러” … 71% 주식-펀드 투자	김자현 · 이상환 · 박희창	동아 일보	2021 1201	2명 (서, 박)
76	“코인·주식 안 하면 희망 없어” “지방 일자리 못찾아” 2030 절망과 분노	송채경화	한겨 레	2021 1203	1명 (2초여7)
77	영끌로 집마련, 빚투로 주식… 30대 빚 11% 급증	김신영 · 김은정	조선 일보	2021 1216	1명 (김)
78	“3년 모은 돈 날려” 루나 폭락에 우는 2030	이승연	세계 일보	2022 0517	1명 (양)
79	“거지 될까봐” 했는데 진짜 거지되게 생겼다…MZ ‘루나 쇼크’	박건	중앙 일보	2022 0518	2명 (정, 강)
80	파이어족 되려다 계좌 0원… “코인충 꿀 좋다” 말에 2번 죽었다 [밀실]	함민정	중앙 일보	2022 0617	2명 (이, 김)
81	1억 빚투했다가 1만원 여관방으로…또 반복된 2030 잔혹사	김연주	중앙 일보	2022 0724	2명 (이, C)
82	“월급으로 집 못 산다” 투기에 올인… 늘어난 빚에 한방 노리다 또 나락 [‘빚투’ 일확천금의 그림자]	조희연	세계 일보	2022 0809	4명 (김, 도, 최, 신)
83	“가족의 화목 되찾을 줄 알았다” 코인으로 3억 날린 30대 후회 [2030 ‘빚투코인’ 블랙박스]	나운채 · 위문희, 최서인 · 서진형	중앙 일보	2022 0829	5명 (김, 이, 박, 남, 장)
84	월급 넘어선 사채 이자…가족 생계 위한 빚, 생계를 목졸랐다	김가운	한겨 레	2022 0919	1명 (김)
85	학자금 대출 갚기도 버거워… 올해 연체자 6만5000명, 이미 작년 수준 넘어	박지민	조선 일보	2022 1004	1명 (이)
86	“우량주 너마저” …주식에서 은행으로 눈 돌리는 2030	박지영	한겨 레	2022 1014	1명 (권)
87	‘영끌’ 빚더미에 씨마른 일자리… 청년이 제일 힘들다	항인호	국민 일보	2022 1114	1명 (A)

2.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내용분석 방법은 신문기사, 미디어, 서적 등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코딩 및 범주화 과정을 통해 패턴과 주제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다(최성호 외, 2016; 유기웅 외, 2018). 다양한 내용분석 방법 중에서도 본 연구는 Elo와 Kyngäs(2008)가 제안한 귀납적 내용분석(inductive 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귀납적 내용분석은 기존 이론이나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주지하

다시피 청년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므로, 귀납적 내용분석이 적합한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귀납적 내용분석은 크게 개방코딩(open coding), 범주(categories) 형성, 추상화(abstraction) 세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Elo and Kyngäs, 2008: 109-111). 개방코딩은 Glaser(1978)가 근거이론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개념으로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범주를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범주 형성 단계는 개방코딩 이후 생성된 범주를 더욱 높은 차원의 범주로 통합하는 과정이다(Burnard, 1991). 범주 형성 단계를 통해 유사한 범주를 상위 범주로 축소하여 총 범주의 수를 줄일 수 있다(Dey, 1993). 마지막으로 추상화 단계에서는 범주 형성을 통해 연구주제의 일반적인 해석을 공식화한다(Polit and Beck, 2004). 추상화 단계에서는 하위범주(Sub-category)들을 포괄범주(Generic category)로 통합하고, 포괄범주들을 통합하여 주요범주(Main category)를 도출한다(Dey, 1993). 추상화 단계가 반복될수록 연구결과는 더욱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된다.

3. 연구의 엄격성 유지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 모두에서 연구의 엄격성(rigor)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엄격성이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와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Lincoln and Guba, 1985). 질적연구에서 연구의 엄격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며,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Creswell, 2013). 본 연구에서는 Padgett(1998)이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분석자 다원화(analytic triangulation)를 활용하였다. 분석자 다원화란 자료에 대한 분석을 다원화하여, 연구자별 분석한 범주나 중심주제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2인의 질적 연구 전문가가 설계, 자료 수집, 분석 과정 등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논의하였으며, 각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분석 후 비교하여 합의된 결과만을 채택하였다. 둘째, 감사자료(audit) 남기기 방법을 활용하였다. 감사자료를 남기는 이유는 분석결과의 재검토가 필요할 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의 재현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후속 연구자들이 연구의 과정을 감사하였을 때, 최대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연구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기록과 메모 등을 보관하였다.

IV. 분석 결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하위범주들은 2개의 포괄범주로 통합했다. 범주 목록은 다음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범주목록

주요 범주 (main category)	포괄 범주 (generic category)	하위 범주 (sub category)	내용(content)
불안과 박탈감, 확신감, 열망감을 자극하여 도박적 투자를 이끄는 사회 · 경제 · 기술적 조건	사회 · 경제 · 기술적 환경	준거집단	· 주변의 성공사례(사례 4-이, 18-강, 18-이1, 19-장, 31-차, 38-홍, 45-김, 47-정, 49-진, 67-조, 72-박, 73-이, 78-양, 79-강, 80-김, 81-이, 82-도, 82-최) · 주변의 권유(사례 1-조, 18-정1, 27-박, 30-김, 35-편, 56-신, 81-C, 83-남, 84-김, 87-A)
		경제적 어려움	· 적은 월급으로는 내집 마련이 어려움(사례 9-장, 20-박, 20-윤, 26-허, 27-이, 27-김, 35-양, 36-A, 48-B, 61-정, 77-김, 79-강, 82-최, 82-신) · 취업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짐(사례 8-최, 24-이, 32-박, 44-이, 63-유)
		유동성 확대	· 저금리로 인한 새로운 투자처 모색(사례 6-김, 8-이, 19-정, 21-김, 27-김, 33-박, 34-김, 36-A, 67-조) · 저금리로 인한 레버리지 활용(사례 15-박, 15-김, 22-이, 37-황, 40-고, 45-윤, 50-김2)
		높은 접근성	· 스마트폰을 활용한 투자(사례 12-연, 16-오, 55-최, 62-이, 64-정, 80-이) · 과거와 달리 유튜브와 SNS를 통한 투자 정보의 쉬운 습득(사례 3-임, 4-김, 15-박, 18-조, 18-박, 19-정, 19-장, 28-C, 40-고, 42-한, 46-이, 67-조, 73-김) · 적은 금액으로 투자 가능(사례 1-이, 4-김, 6-조, 51-김, 51-이 59-강)
	심리적 자극	포모 증후군	·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과 패닉 바잉(사례 7-김, 8-박 10-서, 10-A, 11-백, 14-권, 14-서, 15-박, 15-김, 15-이, 17-박, 17-A, 22-박, 22-정, 26-오, 26-설, 29-김, 29-서, 50-김1, 65-주, 66-강, 69-이, 69-김, 75-박) · 벼락거지로 인한 박탈감(사례 1-이, 3-임, 7-손, 22-최, 28-C, 29-박, 33-박, 34-김, 35-김, 35-양, 37-황, 39-김, 41-박, 43-박, 47-정, 48-B, 51-이, 60-박, 70-이, 72-박, 75-서 76-2초여7, 81-C, 83-이) · 안하면 바보 되는 분위기(사례 35-편, 49-진, 53-윤, 54-박, 81-C, 82-도, 83-장)
		과잉확신	· 주식은 상승장구한다는 믿음(사례 4-이, 5-A, 8-최, 9-장, 18-강, 18-권, 18-정2, 18-석, 20-배, 23-박, 27-김, 30-서, 31-오, 34-김, 35-김, 35-손, 38-홍, 40-김, 67-조, 82-김, 86-권) ·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사례 25-노, 42-한, 43-박, 46-이, 47-정, 51-이, 52-전, 55-박, 55-이, 57-문, 58-A, 59-박, 59-이, 59-김, 60-오, 74-한, 79-정, 83-김, 83-장, 83-박)
		열망	· 파이어족 열망(사례 18-강, 18-이2, 18-조, 35-최, 42-한) · 인생한방을 노리는 도박(사례 2-A, 4-김, 13-이, 26-한, 30-전, 37-황, 45-박, 45-윤, 48-A, 49-김, 51-김, 52-전, 58-A, 59-강, 63-유, 68-박, 71-이, 80-김, 82-김, 82-도, 82-최, 85-이)

1. 사회 · 경제 · 기술적 환경

1) 준거집단

인간은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데(권중돈, 2014), 이는 청년들의 위험자산 투자 사례에도 당연히 적용되었다. 다수의 사례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예적금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례자들은 친구, 회사 동료 등 비교적 친한 사이부터 지인이나 SNS 등 주변에서 소액을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위험자산에 투자하였음을 진술하였다(사례 18-강, 19-장, 31-차, 38-홍, 45-김, 47-정, 49-진, 67-조, 72-박, 73-이, 78-양, 81-이, 82-도). 특히, 누군가가 막대한 수익률을 달성하여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였거나 내집을 마련했다는 성공담은 사례자들의 투자 욕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사례 4-이, 18-이1, 79-강, 80-김, 82-최).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재테크라고 하면 그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정기예금 금리가 물가상승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축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 그때쯤 주변에서 주식으로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도 들려와 ‘지금부터라도 주식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사례 67-조).”

“사회초년생 월급으로는 기본이 1억 중반대인 서울 투룸 전셋집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옆 사무실 선배가 코인으로 2억 원을 벌고 퇴사했다는 말을 듣고 코인을 시작했는데...잘못된 선택이었다(사례 79-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들 코인, 코인 하길래 나도 얼떨결에 시작하게 됐다 ... 그때는 다들 비트코인이 1억 원까지 갈 거라고 전망했고, 알트코인으로 1,000% 수익 인증하는 사람도 많았다. 코인 투자의 위험보단 엄청난 수익(소문)에 취했다(사례 82-도).”

상술한 것처럼 청년들은 주변의 성공사례와 같이 환경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한 경험도 있었지만, 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위험자산에 투자한 사례도 존재하였다. 사례자들(사례 27-박, 30-김, 35-편, 47-정, 56-신, 81-C, 83-남, 87-A)은 친구나 지인이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큰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니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주식의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추천해준 경험도 있음을 진술하였다(사례 1-조, 18-정1, 65-이, 84-김). 주변의 권유로 위험자산에 투자한 사례자들은 수익을 창출한 경우도 있었지만 모두가 수익을 창출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일부 사례(사례 56-신, 81-C, 83-남, 84-김, 87-A)에서는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에 실패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존재했다.

“주변에서 OO전자 주식은 사뭇야 한다는 말이 자주 들려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사례 1-조).”

“와. 아무 일도 안 하고 지인이 추천한 대로만 했는데 월수입의 거의 절반을 얻었잖아요(사례 18-정).”

“그렇게 살면 돈 못 모아. 주식이라도 해야 안정적이지(사례 86-김).”

2)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이 실시한 유동성 확대 정책은 원자재, 주식,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모든 자산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다. 과거 부모세대가 저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서 주택을 구입했던 것과는 달리, 임금상승률 대비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청년들은 저축만으로 내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가격을 연가구소득으로 나눈 서울의 PIR(price to income ratio)을 살펴보면, 2017년 4분기 9.4에서 2022년 4분기 13.4로 증가했다(KB 부동산, 2023). 즉, 2017년에는 가구가 소득 전체를 저축한다고 했을 때 서울 소재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9.4년이었으나, 2022년에는 13.4년으로 무려 4년이 더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사례자들은 임금의 저축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있음을 언급했다(사례 9-장, 20-박, 20-윤, 26-허, 27-이, 27-김, 35-양, 36-A, 48-B, 61-정, 77-김, 79-장, 82-최, 82-신).

“지난해까지 군 복무를 하면서 월급만으로는 집을 사거나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사례 20-박).”

“대출도 받은 상태인데 월급을 모으고 또 모아봤자 10년을 모아도 1억 원도 안 되는 것 아닌가 ...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봤는데 (회사에서) 20~30년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고 의식주만 겨우 해결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느꼈다(사례 27-이).”

“대기업에 다녀도 월급쟁이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뿐이다. 그 돈만 모아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 서울에 집 한 채도 살 수 없다. ... 근로소득은 의미 없고 큰돈은 주식 투자로 벌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 같다(사례 82-최).”

과거부터 진행되어온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결합하면서 고용지표의 악화가 심화되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전인 2019년 12월 실업률은 3.4%였으나, 팬데믹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20년 4월 실업률은 4.2%로 증가했다(통계청 2019, 2020). 특히 선행연구(Corets and Forsythe, 2022)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층에게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0년 4월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20대의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통계청, 2020). 상술한 내용은 사례자들의 진술에서도 드러났는데, 사례자들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했으나 반복적인 실패로 취업을 포기하고 주식 또는 가상자산 투자에 몰두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사례 8-최, 24-이, 32-박, 44-이, 63-유).

“코로나19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취직은 쉽게 안 되지만 주식 시장은 의외로 괜찮아 주식을 하고 있다(사례 8-취).”

“정규직 입사자들의 한 달 월급을 벌기 위해 새벽까지 잠을 설치며 가상화폐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앱)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는 처지가 서글프지만,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낙오될 것 같다(사례 44-이).”

“스펙이 좋은 동년배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주변을 보면 자격증을 따고 바늘구멍을 통과해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사지 않나. 크게 한탕 노리자는 생각에 주식투자자로 살기로 했다(사례 63-유).”

3) 유동성 확대

과거에는 예적금 같은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저축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였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5월에는 0.5%였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3b).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 2022년 5.1%임을 고려하면(통계청, 2023b),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저축을 하면 할수록 자산가치가 훼손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사례자들(사례 8-이, 27-김, 33-박, 34-김, 36-A)은 저축의 대안이자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위험자산투자를 선택했음을 진술하였다. 사례자 중 일부(사례 6-김, 19-정)는 위험자산투자를 통해 은행 예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증액하는 등 투자 성공담을 진술하였다. 하지만 일부 사례(사례 21-김, 67-조)에서는 위험자산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오히려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한 후부터 적금을 들었지만 금리가 너무 낮아 집 살 돈을 모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식을 시작하게 됐다(사례 19-정).”

“군 복무 기간 받은 적금 이자는 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하루 이틀만 투자하면 벌 수 있는 돈이 됐다고 느낀다(사례 27-김).”

“예금 이자는 쥐꼬리만 한데 코스피 지수는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내 집 없는 사람이 돈 벌 방법은 주식밖에 없어요. ... 주식 초보자지만 OO전자나 OO차를 사는 게 금리가 0%대인 1년짜리 정기예금보다 낫겠다 싶어 새로 증권 계좌를 열기로 마음먹었다(사례 34-김).”

저금리 기조는 예적금에 몰려있던 자금을 자산시장으로 이동시키는 머니무브(money move)를 가속화시켰을뿐만 아니라, 대출금까지 자산시장으로 이동시키는 ‘빚투’ 현상을 초래했다. 사례자들(사례 15-박, 15-김)은 대출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투자한 원인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월세보다 대출 이자가 더욱 저렴했기 때문임을 지목했다. 또한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을 기회로 생

각하고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거나(사례 22-이, 50-김2),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상당한 수익률을 달성한 사례들도 확인되었다(사례 37-황, 45-윤). 심지어 대학생 사례(사례 40-고)의 경우,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을 활용한 주식 투자 방법 게시글이 ‘꿀팁’으로 소개되고 있음을 진술하였다.

“나도 그렇고, 청년 다수가 전월세를 살고 있다. 0%대 저금리 시대다.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월세와 장기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데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전세가 소멸되고 있다는 위기감도 있었다. 수도권에 뿌리내린 청년들이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은 원래 전세를 살면서 목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조그만 집이라도 사 시작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전세가 사라지거나 터무니없이 오르면 이마저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사례 15-김).”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생활비대출로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꿀팁’으로 소개됐다. … 생활비 대출 이자가 낮아 주변에서도 ‘대출로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이야기했다(사례 40-고).”

“단기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 무조건 돈을 벌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칠 수 없었다. … 대출이자도 저렴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데다 그보다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다시 생각해도 잘한 선택이었다(사례 45-윤).”

4) 높은 접근성

정보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위험자산 투자 환경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과거에는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을 통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면서 HTS(Home Trading System)가 개발되어, 컴퓨터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과 MTS(Mobile Trading System)의 등장은 무선인터넷이 연결되는 환경에서라면 장소에 상관없이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다수의 사례자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병사들도 군부대에서 정해진 시간에 한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군 복무 중인 사례자들(사례 12-연, 64-정)은 생활관에서 많은 병사들이 주식과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를 하며 투자를 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스마트폰은 위험자산 투자 환경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었지만, 그 편리함으로 인해 일부 사례자들(사례 16-오, 55-최, 62-이, 80-이)은 하루종일 스마트폰을 응시하며 중독이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잠깐 한눈과는 사이 수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 스마트폰 거래 앱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 내가 생각해도 ‘스마트폰에 중독됐다.’는 생각이 든다(사례 62-이).”

“일과가 끝나는 오후 5시 30분쯤부터 오후 9시 정도까지 휴대전화를 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유튜브 등을 보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주식 열풍. … 얼마 전까지는 코인 붐도 일었다. … 코인이 폭발하자 생활관에서 휴대폰으로 확인하다 비명을 지르는 동료도 있었을 정도(사례 64-정).

“휴대폰 하나면 장소 상관없이 쉽고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어 2030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다 투자 중독이 되고, 현실 돈이 게임머니 같았다(사례 80-이).”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SNS와 유튜브(youtube)의 비약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다수의 사례자들(사례 3-임, 15-박, 18-조, 18-박, 19-정, 19-장, 28-C, 40-고, 42-한, 46-이, 73-김)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시세 전망, 추천 종목 정보 등에 쉽게 접근하였으며, 차트 및 재무제표 분석방법 등 전문적인 지식도 습득하여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투자 정보에 대한 높은 접근성이 순기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리딩방이란 대화방 운영자가 메신저 또는 유튜브 방송을 활용하여 회원들에게 종목 매매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형태이다(금융감독원, 2023). 리딩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허위사실 유포 및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리딩방 회원들은 막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 최근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이 2020년 1,744건에서 2021년 3,442건으로 97.4% 급증했다(금융감독원, 2022). 실제로 사례 4-김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리딩방에 가입하였으며, 사례 67-조는 리딩방 가입 이후 손실을 본 경험을 진술했다.

“옛날에는 주식 하면 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보니 주식은 도박 같은 게 아니라 공부해서 종목만 잘 고르면 손해는 안 보는 일 같더라고요(사례 18-박).”

“비트코인이 유행할 땐 다들 잃었다는 소식만 들려 투자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 그런데 코로나 19가 확산될 당시 진단키트 회사나 마스크 업체에 투자했던 친구들이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주식을 시작하게 됐다. … 동기들끼리 일상을 공유하는 카톡방이 이젠 종목을 추천하거나 소위 ‘찌라시’ 소식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사례 19-장).”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이 시장의 흐름만 보면 비슷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금융위기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금융위기를 다룬 ‘빅쇼트’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다섯 번이나 봤고, ‘저렇게 큰돈을 벌 기회도 오긴 오는구나. 기회가 오면 나도 잡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저는 홍보팀에 있어서 신문을 매일 봤는데, 코로나 초기 분위기가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던 생각이 들었어요. 신문 1면은 무시무시한 뉴스로 도배가 됐죠. 저는 금융위기 당시의 신문을 찾아서 보면서 그때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을 공부했어요. 유튜브도 뒤졌고요. ‘아, 이번 폭락장은 신이 주신 기회다’란 확신이 200% 들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원 정도를요(사례 42-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위험자산 투자 환경의 편의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소액투자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막대한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나, 주식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사례자들(사례 1-이, 4-김, 6-조, 51-김, 51-이, 59-강) 역시 부동산 투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주식 및 가상자산에 투자하였음을 진술했다. 주식 종목의 가격은 부동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소위 ‘동전주’라 불리는 주당 가격

이 천원 미만인 종목들도 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소액투자자와 결합하여 빈테크 열풍을 일으켰다. 가상자산은 주식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데, 가상자산은 종목별로 1개 단위를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수점 단위로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OO코인의 경우 현재 소수점 아래 8자리 단위로 매매할 수 있다.

“모아둔 돈으로는 엄두조차 못 내는 부동산에 기웃대느니 꾸준히 종잣돈을 늘려 주식으로 재미를 보고 싶다(사례 6-조).”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무섭게 불려가지 않나.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되는 것 … 자본금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은 가상화폐 투자라고 생각한다(사례 51-이).”

“비트코인은 단가가 비싸고 이미 너무 올라 매력이 없다. …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내기엔 알트코인이 제격(사례 59-강).”

2. 심리적 자극

1) 포모증후군(FOMO Syndrome)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를 해결하고자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양적완화정책은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이러한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되어 부동산 자산의 가격 급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였다(한국은행, 2021).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년들은 더 늦으면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더욱 상승하여 내집을 마련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에 패닉 바잉(panic buying)을 하였고 구슬했다(사례 7-김, 8-박, 10-서, 10-A, 11-백, 14-권, 15-박, 15-김, 17-박, 22-정, 26-오, 26-설, 29-김, 29-서, 50-김1, 66-강, 69-이, 75-박). 다수의 사례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패닉 바잉을 한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집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자산이 국가의 복지제도나 개인이 보유한 금융자산과 같은 생활보장수단의 기능적 등가물로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일 것이다(김도균, 2013; 홍경준·김사현, 2018). 한편, 일부 사례자들은 불안감에 패닉 바잉을 하였지만, 부동산 자산의 매물이 줄어드는 것과 매수한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표현했다(사례 14-서, 15-이, 17-A, 22-박, 65-주, 69-김).

“어쨌든 사놓고 보니 정말 다행 …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정부의 규제로 잡을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정부 말대로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영끌하며 사는 30대가 실제로 안타까운 존재가 될지 아닌지는 지켜보면 알 것(사례 14-서).”

“4·27 대책 발표 전 가계약을 건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 대책 발표 후 코로나19로 떨어지던 집값이 오히려 반등했다. 대출을 옥죄었기에 직장이 탄탄한 젊은 층은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듯했다. 35년 원리금 균등 상환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이자까지 포함해 한 달 130만 원이 고정 지출이다. 아내와 나 둘 중 하나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것이라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하면 행복한 고민이라는 걸 안다. 매번 신용과 담보의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낚고 다 쓰러져가는 서울의 아파트를 잡은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주변의 후배들에게 늘 말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사, 누가 뭐라든 (사례 15-이).”

“후회는 전혀 없다. … 임대주택도 보증금을 구하려면 어차피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거기에 매달 지불하는 관리비 등 수수료까지 따져보니 차라리 집을 사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아 나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섰다. … 요즘 주변 단지에 매물이 아예 사라진 것을 보면 그때 집을 사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사례 17-A).”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지면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자산불평등의 심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Piketty(2014)는 유럽의 불평등은 노동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의 변화에 의해 주도되어왔음을 실증하면서, 자산불평등의 심화는 능력주의(meritocracy)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다수의 사례자가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박탈감을 경험하였으며(사례 1-이, 3-임, 22-최, 28-C, 29-박, 34-김, 35-김, 35-양, 37-황, 39-김, 41-박, 43-박, 47-정, 48-B, 51-이, 60-박, 70-이, 72-박, 75-서, 76-2초여7, 81-C, 83-이), 더 나아가 분노를 호소하였다(7-손, 33-박).

“지난해 7월 부동산 가격급등을 보고 화도 나고 박탈감이 심해져 주식을 시작했다. … 처음엔 500만 원으로 굴리다가 지금은 전 재산을 굴리고 있다(사례 33-박).”

“2018년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면서 주식시장에 월급의 절반가량을 붓고 있다. … 적금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공격적인 투자로 자산을 불리지 않으면 집값의 오름세를 따라잡을 수 없다(사례 41-박).”

“집을 가졌거나 땅에 투자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억 원씩 이득을 본다는 기사를 보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사례 48-B).”

인간은 집단지향적 존재로, 출생한 순간부터 사회 속에 속해있으며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다(권중돈, 2014). 따라서 인간은 사회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으며, 끊임없는 재사회화를 통해 사회의 흐름에 적응하고자 한다. 사례자들은 친구, 지인, 커뮤니티 등에서 대화의 화두가 위험자산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소외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음을 진술했다. 또한 사례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위험자산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사례 35-편, 49-진, 53-윤, 54-박, 81-C, 82-도, 83-장).

“올 초에 3,400만 원 신용대출을 받자마자 절반 떼서 주식을 샀다 … 처음엔 망설였는데 친구들이 ‘아직도 빛 안 냈냐’ 는 반응에 큰마음 먹고 결정했다(사례 35-편).”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대충 이름이 예쁜 알트코인(비트코인 외에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는 말이 돌 정도로 아무것이나 사도 ‘돈복사’ (돈이 불어나는 것)가 됐다 … 친구들이 코인 투자로 번 돈을 인증하는 마당에 가만히 있으면 혼자 바보가 될 것 같았다(사례 49-윤).”

“요즘 사람들을 만났다 하면 코인 · 주식 애긴데 안하면 바보 되는 분위기 … 수익 냈다는 얘기도 워낙 많이 들리니까 ‘코인 절대 안하겠다’ 던 친구들도 시작했더라 … 이렇게 다들 결무새(과거를 후회하는 ‘~걸’ 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는 뜻)가 돼 가고 있다(사례 54-박).”

2) 과잉확신

1964년 1월 4일 코스피 산출이 시작된 이래로 주가지수는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현재의 지수 산식인 시가총액식이 도입된 1983년 1월 4일 코스피 종가는 122.52였으나, 2023년 3월 6일 코스피 종가는 2,462.62로 약 1,910% 증가하였다(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2023). 청년들은 주식은 언젠가는 오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었으며(사례 5-A, 8-최, 18-권, 18-정2, 18-석, 27-김, 30-서, 31-오, 35-손, 38-홍, 40-김, 82-김), 우량주로 평가되는 대기업 주식가격의 상승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례 4-이, 9-장, 34-김, 86-권). 한편, 일부 사례자들(사례 18-강, 20-배, 23-박, 35-김, 67-조)은 언젠가는 오르겠다는 막연한 믿음보다는 증권사 리포트 확인,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상승할 종목을 발굴하여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주가는 기준금리, 세계 각국의 증시현황,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에 주가의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종목이 상승할 것이라 믿고, 투자를 하는 행위도 일종의 과잉확신이라 할 수 있다.

“언젠가 다시 오를 걸 보고 산 것. … OO전자 주가는 그동안 가격이 비쌌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하락했다. 회사 가치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외부 환경 변화 때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으로 OO전자 주식을 사는 것 같다(사례 4-이).”

“우린 어차피 오래 살아야 하잖아요. 지구가 끝장날 거라곤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돈을 넣어 두면 중간에 폭락하더라도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언젠가는 다시 오르지 않을까요?(사례 18-석).”

“남자친구도 결혼자금으로 쓸 목돈을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한다며 우량주에 투자했는데, 절반 넘게 손해 보고 있어서 도저히 못 뵈는 것 같다. … 마이너스 통장 이자 내는 게 낫겠다 싶어 일단 버티보려 한다(사례 86-권).”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관점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된 대안화폐로 바라보는 낙관론과 17세기 네덜란드의 튜립버블과 같은 투기현상으로 치부하는 비관론이 혼재되어 있다. 일부 사례자(사례 25-노, 42-한, 59-김)는 상술한 낙관론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하여 투자한 경험을 진술하였다. 하지만 관점이 혼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례자들은 가상자산이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무지성식 투자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사례 43-박, 46-이, 47-정, 51-이, 52-전, 55-박, 55-이, 57-문, 58-A, 59-박, 59-이, 60-오, 74-한, 79-정, 83-김, 83-장, 83-박).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했고 코로나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고 있다 …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암호화폐는 20대에게 매력적인 투자처.” (사례25)

“처음엔 왜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는지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유를 찾는 사이 가격이 더 뛰더라고요. 투자 분석할 시간에, 아르바이트할 시간에 가상화폐 거래를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이득입니다.” (사례46)

“인터넷 결제를 포함해 앞으로는 오프라인 가게에도 비트코인 결제가 적용될 것으로 본다 … 시즌 1 때도 결국 참고 기다렸던 사람이 승자가 됐듯 경험적으로 언젠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사례59-김)

3) 열망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와 더불어 ‘파이어족(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이 화두로 등장하였다. 원래 파이어족이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극대화하여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조기 은퇴 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조기 은퇴 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로 활용되며 청년들에게 파이어족 열풍이 불었다. 사례자들(사례 18-강, 이2, 18-조, 35-최, 42-한)은 노동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투자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서울에 안 살고 ‘에·차·개(아이, 자동차, 개) 3중세트’만 안 하면 가능해요. 계산해보니 5억~6억 원 정도만 있으면 원금 손실이 전혀 없이 월 150만 원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 은퇴 이후 아예 일을 안 하고 놀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리스타에 꽃히면 커피 내리는 일을 하고, 질리면 여행 가이드 하고… 톱니바퀴 속 노동자가 아니라 온전히 나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사례 18-조).”

“딱 40살까지만 고생하고 이후에는 번 돈으로 유능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면서 살고 싶다(사례 35-최).”

“저는 회사 생활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투자로 돈을 벌리다 보니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에도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도박처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입사 초기엔 막연하게

‘30억 원 정도 모이면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5억원 정도가 되니 투자에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졌습니다. 운 좋게 그 목표가 빨리 달성됐고 올해 3월에 퇴사했습니다(사례 42-한).”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상하한폭이 30%로 제한되어 있으며, 변동성을 조절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나 사이드카(side car), VI(volatility interruption) 등이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상당히 큰 편인데, 코스피에 상장된 OO제약 주가의 경우 2020년 3월 20일 6,510원이었으나 약 6개월 뒤인 2020년 9월 25일 214,000원으로 약 3,186% 폭등하였다. 한편, 가상자산시장은 국내 주식시장과 달리 상하한폭에 제한이 없고 24시간 운영되며, 변동성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없어 변동성이 더욱 크다. 일례로 OO코인의 경우 2021년 2월 17일 종가 기준 198원이었으나 다음날인 2021년 2월 18일 오전 9시에 4,180원으로 하루만에 2,011% 급등하였다. 막대한 유동성과 자산시장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는 ‘가즈아’, ‘to the moon’과 같은 신조어들을 유행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은 한탕주의가 만연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사례자들은 가상자산 및 주식 투자를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 진술하였다(사례 2-A, 4-김, 13-이, 26-한, 30-전, 37-황, 45-박, 45-윤, 48-A, 51-김, 58-A, 59-강, 63-유, 68-박, 71-이, 82-도, 85-이). 또한 몇몇 사례자들(사례 49-김, 52-전, 80-김, 82-김, 82-최)은 가상자산 및 주식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도박과 같은 짜릿함과 중독성을 경험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가상자산 및 주식투자자와 도박문제 증상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강상준 외, 2021; Johnson et al., 2023)의 결과를 지지한다.

“비트코인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가보자. 어차피 인생은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다’라는 말이에요. 비트코인 투자로 크게 한몫 벌면 한강 풍경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고, 실패하면 한강물에 빠져 죽는다는 뜻이죠. (가상화폐 투자가) 얼마나 위험성이 높은지 알아요. 근데 왜 너도나도 뛰어들까요? 정부는 무작정 규제만 외칠 게 아니라 왜 2030세대가 코인투자에 몰두하는지를 파악해야죠(사례 48-A).”

“암호 화폐 투자는 한탕주의가 맞습니다. 정확히 뭘지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일매일 ‘야수의 심장’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 홀짝에 모든 걸 거는 짜릿함이 있어요 (사례 52-전).”

“1시간 만에 50만원을 버는 걸 보니 짜릿했어요. 중독되는 것 같고 마치 도박 같았죠(사례 80-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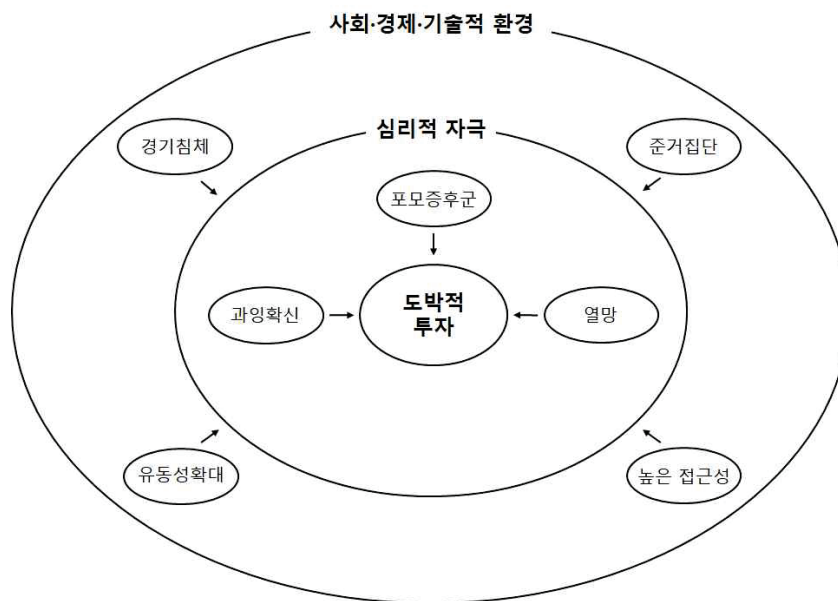
3. 핵심범주 분석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년들은 사회·경제·기술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준거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유동

성확대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기술적으로는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높아진 투자 접근성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외부 환경은 청년들의 심리를 자극해 포모증후군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투자에 대한 과잉확신을 갖게 했으며,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했다. 인과관계를 양적 연구와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실증해보아야 하겠지만, 자료의 전체적인 맥락상 청년들은 먼저 변화된 환경을 투자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심리적인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포모증후군, 과잉확신, 열망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은 도박과 유사하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신을 가지고 모험적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연구자들은 도출된 범주들 간 관계를 고려한 결과 전체 범주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범주를 ‘불안과 박탈감, 확신감, 열망감을 자극하여 도박적 투자로 이끄는 사회·경제·기술적 조건’으로 상징할 수 있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핵심범주 분석 결과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들이 왜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청년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한 구술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언론 기사를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기술적 환경요인으로는 준거집단, 경제적 어려움, 유동성확대, 높은 접근성이 지목되었으며,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포모증후군, 과잉확신, 열망 같은 요인들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몇 가지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함의이다. 연구 결과 청년들의 위험성 투자의 원인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인과성과 관련이 있었다. 선행연구들(이계웅·하규수, 2014; Ashish and Fazalbhoy, 2022)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두 요인 모두 위험성 투자에 각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한 결과, 환경적 요인이 심리적 요인에 선행하여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시간적 선행성을 고려한 매개효과모형을 설정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경영 및 경제 분야 관련 연구(임미자, 2011; Ainia and Lutfi, 2019; Ahman and Shah, 2022)들은 심리적으로 ‘과잉확신’이 위험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요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포모증후군, 열망과 같은 다른 요인들 역시 위험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위험자산 투자의 관계를 실증하는 경우, 분석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로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 결과는 청년층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여 도출된 결과이므로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다른 연령층에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계웅과 하규수(2014)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투자의 환경적 요인으로 ‘준거집단’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준거집단이 투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을 대상으로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연구들(이동준 외, 2021; 윤덕규, 2022)의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상술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준거집단이 개인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 연구들(최원호, 2018; 김병우, 2019; Chetty, et al., 2017)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안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재무환경이 오히려 위험한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청년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원인이 다른 연령층과 구분되므로, 청년들의 투자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책적 함의이다. 청년들의 투자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에 선행하는 사회·경제·기술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따라서 청년들의 투자 실패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의 책임을 청년 개인에게 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론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투자를 결심하고 실행한 개인에게 있다. 다만, 연구자들은 청년들이 투자를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위험자산에 도박적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경기는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순환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와 대비되는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기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나타난 청년들의 도박적 투자 현상을 교훈 삼아 청년들이 위험자산에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2021)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금융이해력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Ahman and Shah, 2022),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의 확대와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를 고려해볼 수 있다.

더불어 청년들은 포모증후군, 과잉확신, 열망 등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위험자산에 모험을 건 도박적 투자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복지상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도박문제예방 치유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투자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문제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부채관리와 같은 직접적인 개입과 심리·정서적 지원의 병행이 요구된다.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서비스 제공과 유관기관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모델이 존재하기보다는 이용자에게 타 기관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연계하는 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합사례회의 모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에 따라 서비스 연계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시행 중인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 모델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포함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부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청년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사례관리과정에서 게이트웨이(Gateway)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및 채권추심업체와의 연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최근 ‘청년 빚 탕감 정책’이 중장년층과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도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킨 만큼 청년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차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1:1 심층인터뷰, 초점집단면접 등을 통해 청년들의 위험자산 투자 경험을 직접 듣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면 본 연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요인들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각 투자 영역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상품별로 투자 원인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위험자산 투자의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파악하는 보다 정교한 연구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상준·양혜정·문진영, 2021, 「청년층의 자산소득 투자와 도박중독 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2(6): 361-372.
- 구자현·정대희·김정욱·한성민·김지연·조가람·윤여창·김경배·김홍규·이왕휘·조정근, 2021,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권중돈, 2014,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 금융감독원, 2022, 『보도자료: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2023, 『보도자료: 패스트트랙(증권위원장 긴급조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엄청 대응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2022, 『20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 김광현·김태은, 2020, 「‘빈테크’의 출현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연구」,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5(2): 227-233.
- 김기현·배정희, 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도균, 2013,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개발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명수, 2022,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택투자 붐과 청년들의 ‘패닉바잉’ 행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명순, 2008, 「도박사의 오류와 확률해석」, 『철학과 문화』, 17: 35-56.
- 김민기·김준석, 2021, 『코로나19 국면의 개인투자자: 투자행태와 투자성과』, 자본시장연구원.
- 김병우, 2019,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추정한 자산보유 선택행위」, 『산업경제연구』, 32(6): 2133-2159.
- 김영하, 2016, 「청년복지학 연구서설」, 『사회복지정책』, 43(3): 141-163.
- 김정은·김지하, 2015,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정책이 학업성취 및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학연구』, 53(3): 317-345.
- 김중두, 2021, 「가상화폐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분석: S 대학생을 중심으로」, 『에듀테인먼트연구』, 3(2): 1-23.
- 민성길·강홍조·고경봉·구민성·기선완·김경희·김도훈·김율리·김임·김종주·김지웅·김찬형·남윤영·노재성·문인원·민성호·박기창·서신영·서호석·신의진·신정호·안정숙·양창순·이상혁·이영문·이종범·임기영·전덕인·전우택·정문용·정성덕·정영기·최의현, 2015, 『최신정신의학 제6판』, 일조각.
- 민재형·구기동, 2004, 「불확실성하에서의 개인의 투자행태 및 투자결정요인」, 『서강경영논총』, 15(2): 111-132.
- 박선웅·박예린, 2019, 「불확실한 정체성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2): 1-21.
- 박정민·이휘영·최성숙·이유진, 2022, 「청년 주도 지역사회역량강화 전략이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 지역사회 소속감,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73: 65-94.
- 백아름·노혜진·박정민, 2022, 「청년 과중채무의 본질과 채무조정경험: 갈망, 불안정성, 그리고 희망」, 『사회복지연구』, 53(3): 139-181.
- 안영규, 2021, 「주식중독의 원인 및 대응방안」,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1(3): 69-83.

- 엄명용 · 김성천 · 오혜경 · 윤혜미, 2016,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4판』, 학지사.
- 여윤경 · 정순희, 2004, 「가계의 주식투자 결정요인」, 『가정과삶의질연구』, 22(3): 11-21.
- 옥기울 · 김태우, 2010, 「한국주식시장과 투자주체별 과신현상」, 『금융공학연구』, 9(4): 101-123.
- 유기웅 · 정종원 · 김영석 ·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개정판(2nd ed.)』, 박영스토리.
- 윤덕규, 2022, 「기독교 사회복지 시각에서 청년들의 주식 · 코인 투자 열풍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26: 267-293.
- 이계웅 · 하규수, 2014, 「금융투자상품 투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투자상담서비스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5): 53-68.
- 이동준, 2022, 「낙화(落花): 가상화폐에 투기한 청년들의 추락」,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6(2): 67-97.
- 이동준 · 맹성준 · 강준혁, 2021, 「청년 주식투자자들의 ‘빚투’ 경험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접근」, 『미래사회복지연구』, 12(1): 127-160.
- 이선희 · 김미리 · 정순돌, 2019, 「청년세대의 연령주의 유형화 및 연령주의 유형과 세대갈등 · 노인복지정책 인식의 관계」, 『한국노년학』, 39(4): 825-846.
- 이영선 · 김수연 · 김혜지 · 김한나, 2018, 「20대 청년세대의 가상화폐에 대한 주관성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8): 137-145.
- 이용호 · 이원익, 2022, 「부채에 따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4(3): 339-364.
- 이화연 · 이재은 · 유필화, 2007, 「투자자집단 세분화와 투자의사결정 고려요인에 관한 연구」, 『마케팅관리연구』, 12(4): 23-43.
- 임덕영 · 이경애 · 진미윤 · 이의중, 2017, 『청년 주거 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임미자, 2011, 「금융상품 투자 시 과잉확신 소비자의 캠블러의 오류가 의사결정과정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연구』, 26(4): 35-57.
- 장혜영 의원실, 2021, 『올해 상반기, 청년 세대 주식 투자 위한 신규대출액 38조 원 넘어』, 장혜영 의원실.
- 정세정 · 김태완 · 김문길 · 정해식 · 김기태 · 주유선 · 강예은 · 최준영 · 송아영 · 김용환,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소현 · 유명수 · 고은희, 2020, 「밀레니얼세대와 X세대, 86세대의 금융상품 보유 행동」, 『Financial Planning Review』, 13(2): 1-32.
- 주희정 · 김민석, 2018,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2): 59-86.
- 최성호 · 정정훈 · 정상원, 2016,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2(1): 127-155.
- 최원호, 2018, 「부채가계의 자산배분과 결정요인」, 『재무연구』, 31(4): 557-594.
- 최지은 · 정순희 · 여윤경, 2005, 「소비자의 자산계층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소비자학연구』, 16(1): 55-71.
- 최효미 · 강은진 · 조미라 · 조숙인 · 김태우, 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크레스웰, 2015, 조흥식 · 정선옥 · 김진숙 · 공지석 옮김,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문예출판사.
- 통계청, 2019, 『보도자료: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통계청.
- 통계청, 2020, 『보도자료: 2020년 4월 고용동향』, 통계청.
- 통계청, 2022,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 피케티, 2014, 장경덕 옮김,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2022, 『2021 펀드 투자자 조사 결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 한국은행, 2021, 『금융안정보고서 2021.12』, 한국은행.
- 한국은행, 2022, 『금융안정보고서 2022.12』, 한국은행.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2021, 『보도자료: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 허경옥 · 이현진 · 최미향, 2010, 「가구주의 위험감수성향에 따른 가계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구조 분석」, 『2010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236-2262.
- 홍경준 · 김사현, 2018, 「노동대중의 균열: 위험지위와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5(2): 67-94.
- Ahman, M., and Shah, S. Z., 2022, “Overconfidence heuristic-driven bias in investment decision-making and performance: mediating effects of risk perception and moderating effects of financial literacy”, *Journal of Economic and Administrative Sciences*, 38(1): 60-90.
- Ainia, N., and Lutfi, L., 2019, “The influence of risk perception, risk tolerance, overconfidence, and loss aversion towards investment decision making”, *Journal of Economic, Business, and Accountancy Ventura*, 21(3): 401-413.
- Ashish, V., and Fazalbhoy, S., 2022, “Impact of Covid-19 on investment education and behavior in cryptocurrency and stock market: A study of indian undergraduate students”, *Annual Research Journal of SCMS, Pune*, 10: 59-79.
- Burnard, P., 1991, “A method of analysing interview transcripts in qualitative research”, *Nurse Education Today*, 11: 461-466.
- Chetty, R., and Sándor, L., and Szeidl, A., 2017, “The effect of housing on portfolio choice”, *The Journal of Finance*, 72(3): 1171-1212.
- Cortes, G., and Forsythe, E., 2022, “Heterogeneous labor market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ILR Review*, 2022: 1-26.
- Dey, I., 1993, *Qualitative data analysis. A user-friendly guide for social scientists*, London: Routledge.
- Elo, S., and Kyngäs, H., 2008,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1): 107-115.
- Gagarina, M., Nestik, T., and Drobysheva, T., 2019, “Social and psychological predictors of youths’ attitudes to cryptocurrency”, *Behavioral Sciences*, 9(12): 1-10.
- Gervais, S., Heaton, J. B., and Odean, T., 2009, “Overconfidence, investment policy, and executive stock options”, *Rodney L. White Center for Financial Research Working Paper*, 15(2): 1-50.
- Glaser, G. B.,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Advances in the methodology of Grounded Theory*, CA: Sociology Press.
- Himanshu., Ritika., Mushir, N., and Suryavanshi, R., 2021, “Impact of COVID-19 on portfolio allocation decisions of individual investors”, *Journal of Public Affairs*, 21(4): 1-9.
- Hoxha, V., and Zeqiraj, E., 2019, “The impact of Generation Z in the intention to purchase real estate in Kosovo”, *Property Management*, 38(1): 1-24.
- Johnson, B., Co, S., Sun, T., Lim, C., Stjepanovic, D., Leung, J., Saunders, J., and Chan, G., 2023, “Cryptocurrency trading and its associations with gambling and mental health: A scoping review”, *Addictive Behaviors*, 136: 1-8.

- Kumar, A., 2009, "Who gambles in the stock market?", *The Journal of Finance*, 64(4): 1869-1933.
- Langer, E. J., 1975, "The illusion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2): 311-328.
-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CA: Sage.
- Munawar, N. A., and Mahaputra, M. R., 2022, "The youth interest to invest in stocks: Education, advertising and motivation", *Dinasti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Management and Social Science*, 3(4): 1-10.
- Odean, T., 1998, "Volume, volatility, price, and profit when all traders are above average", *The Journal of Finance*, 53(6): 1866-1934.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o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CA: Sage.
- Polit, D. F., and Beck, C. T., 2004, *Nursing research, principles and methods*,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To, A. T., and Siem, T. T., 2023,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o investigate the stock investment intention of Vietnamese youth",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Based on Digital Platform*, 2022: 231-244.
- Yin, R. K., 2015,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2nd ed.)*, NY: the Guilford Press.
- Yusof, H., Munir M., Zolkaply, Z., and Anuar, M. A., 2023 "Exploring cryptocurrency readi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Proceeding of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Accounting, Finance and Economics*, 2022: 273-286.
- <뉴스1>, 2022, 「“돈 안굴리면 손해” ...청년 명 중 1명, 주식·코인 ‘빛투 경험’ [청년이 바꾼다-금융·재테크]③」, [https:// www.news1.kr/articles/4877264](https://www.news1.kr/articles/4877264). (검색일: 2022.11.27.)
- <세계일보>, 2022, 「‘쪽박’ 난 주식·코인... ‘청춘’ 담보 잡히다 [‘빛투’ 일확천금의 그림자]」, <https://www.segye.com/new sView/20220807510798?OutUrl=naver>. (검색일: 2022.11.27.)
- <동아일보>, 2021, 「청년 45% “일해서 번 돈으로 자산 못볼러” ... 71% 주식·펀드 투자자」, <https://www.donga.com/news/ Economy/article/all/20211201/110537044/1>. (검색일: 2022.11.27.)
- 국립국어원, 2023, 「청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검색일:2023.02.27.)
- 법제처, 2023a,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8513,20221017\)](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8513,20221017)), (검색일: 2023.02.27.)
- 법제처, 2023b, 「청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16956,20200204\)](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16956,20200204)), (검색일: 2023.02.27.)
- 통계청, 2023a, 「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2, (검색일:2023.02.27.)
- 통계청, 2023b, 「월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0042&checkFlag=N, (검색일:2023.03.10.)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2023, 「개별지수 지세 추이 - 코스피」, <http://data.krx.co.kr/contents/MDC/MDI/mdiLoader/index.cmd?menuId=MDC0201010101>, (검색일:2023.03.07.)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3a,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2023.03.03.)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3b,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2023.03.03.)
- KB부동산, 2023,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https://data.kbland.kr/kbstats/pir>, (검색일: 2023.03.19.)

A Study on the Factors of Young Adults' Risky Asset Investment: Focusing on the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Leading to Gambled Investment

Maeng, Seong Jun
(Sungkyunkwan University)
Yang, Eun Jeong
(Sungkyunkwan University)
Kang, Jun Hyeok
(Eulji University)

Subject Social Welfare, Qualitative Research

Key words Young Adults, Risky Asset, Gambled Investment, Inductive Content Analysis

Summary Recently, the problem of economic loss caused by young adults' investment in the asset market has emerged as a social probl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young adults' risky investments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151 cases were extracted from 87 media articles in which young adults' risky asset market investment cases were specifically reveal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nductive content analysis method proposed by Elo and Kingäs (200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total of 7 subcategories were derived, including "FOMO syndrome," "overconfidence," "aspiration," "reference group," "economic difficulties," "liquidity expansion," and "high accessibility." In additio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derived categories, the researchers assumed that the main category that integrates the entire category is "soci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nditions that lead to investing like gambling by stimulating feelings of anxiety, deprivation, confidence, and aspira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mentioned above, the researchers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Expansion of financial education that can prevent young adults from risky investments, development of campaigns to create a healthy investment culture, expansion of the role of financial-welfare counseling centers for those who suffering from investment failure, and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case management model based on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접 수 일 : 2023년 4월 9일

심사완료일 : 2023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 : 2023년 5월 1일